

## 출향 기업인 고향사랑 '훈훈'



광주출신 벨이퍼퓸 조종국 사장  
불링대회 수익금 난치병 성금 기탁도

서울에서 사업가로 성공한 광주출신 조종국(47) 사장의 남다른 고향 사랑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서울소재 통신업체 (주)벨이퍼퓸은 운영중인 조 사장은 지난 2002년부터 매년 분기별로 자선 불링대회를 개최, 수익금 전액을 불우이웃돕기에 기탁하고 있다.

조 사장은 올해에도 지난 3일 '개장 4주년 기념불우이웃돕기 불링대회'를 개최해 얻어진 수익금을 난치병 학생돕기 성금으로 광주서부교육청에 전달했고, 백혈병을 앓고 있는 임채원 어린이를 위해 광주일보자회에도 성금을 보냈다.

조 사장의 이웃사랑은 고향 돋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조 사장은 지난해 파키스탄 난민돕기 불링대회와 통일자전거 보내기 운동, 폭설피해 농어민 돋기 행사를 열어 모금된 성금을 YMCA와 전국재해 구호협회에 기탁했다.

지난 2002년 광주시 북구 소재 텐관불링장을 개장한 조 사장은 불링동호인들과 함께 불우이웃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매년 분기별로 '불우이웃돕기 불링대회'를 개최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

조 사장은 이외에도 광주시 불링발전을 위해 지난해 (주)벨이퍼퓸 여자실업단 불링팀을 창단, 을 전국체전부터 광주대표로 출전하는 등 지역 체육발전에도 남다른 열정을 보이고 있다.

광주 상무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에서 종·고·대학을 마치고 통신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조 사장은 "고향을 위해 조그마한 일을 찾던 중 여자실업팀 창단과 불링대회를 통한 불우이웃돕기 행사를 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불링동호인들과 뜻을 모아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돋는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체조선수 양태영, 무안 삼향초 방문



2004년 아테네올림픽 남자체조 은메달리스트 양태영이 6일 오후 2시 무안군 소재 삼향초등학교를 방문한다.

양태영은 이날 박득표 대한체조협회장 등 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삼향초등학교를 찾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범 및 실기 지도를 하고 학교에 기증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는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교육인적자원부가 후원하는 2006 학교스포츠보급 프로그램의 하나로 지난 달 역도 장미란의 모교 방문을 시작으로 역도, 야구, 체조, 배구, 핸드볼, 카누, 럭비, 육상 등 8개 종목에 걸쳐 21일까지 계속된다.

## 졸리-피트 딸 사진 유출 경로 밝혀져



안젤리나 졸리와 브래드 피트의 딸 샤일로 누벨의 사진이 인터넷에 유출됐던 것은 고장난 졸리의 남자 형제 카메라를 수리하던 업소에서 빼돌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4일(이하 현지시간) LA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졸리-피트 커플이 지난 5월 나미비아로 출산하던 떠났을 때 동행한 이들 가운데 졸리의 형제인 제임스 헤이븐이 포함돼 있었고 당시 헤이븐은 자신의 디지털 카메라에 샤일로 누벨, 졸리-피트 커플 등 약 400장의 사진을 담아 로스엔젤레스로 돌아왔다는 것.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로 사전에 매주 목·금요일, 1366, nam939@dreamwiz.com

▲(사)이주가족복지회 긴급지원 및 상담=동남아 혼이민자나 가족들 대상으로 상담 및 문화강좌. 363-2963, www.ejufamily.com 문화강좌는 월·금 오전 10시~낮 12시, 수 오전 10시~오후 3시(접수 제한)

## 동창·동문회

▲북성중 제 6회 동창회(회장 강대식) 월례회=6일(목) 오후 6시30분 등마루, 521-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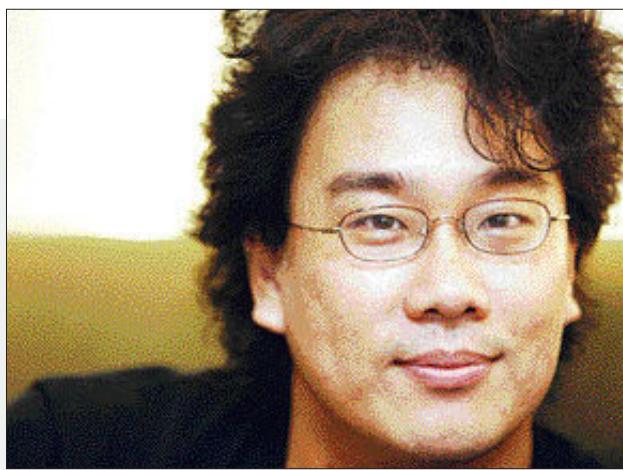
▲재광 홍일고 이사회(회장 김철남) 정기모임=6일(목) 오후 7시30분 쌍촌동 목포 갯벌나지, 011-611-9005

▲북성중 제 7회 동창회(회장 김권수) 월례회=7일(금) 오후 7시 금강산, 224-0808

▲재광 전주 영생고 총동문회(회장 배기영) 모임=11일(화) 오후 7시 장어한마리, 371-9230

▲북성중 제 12회 동창회(회장 서운호) 월례회=12일(수) 오후 7시 나주곰탕.

▲광상 32회(일지모) 동창회=14일(금) 오후 8시 아마기 참치횟집, 011-9609-0055



"언젠가는 분단을 소재로 영화를 만들 생각입니다. 우리의 빠아픈 현실이잖아요."

4일 공개된 '괴물'로 한국 영화계에 또 하나의 획을 그은 봉준호 감독이 남북 분단에 관한 영화를 만들 계획을 밝혔다.

그는 북에서 활동한 소설가 구보 박태원의 외손자.

## 최근 어머니와 북 큰이모 상봉 화제

그는 지난 6월 19일 제14차 이산가족 상봉에서 북에 사는 큰이모와 자신의 어머니가 만났고, 이 과정에서 그의 이름 역시 뉴스를 탔다.

봉 감독은 "어머니와 큰이모님이 상봉하셨을 때는 중국 상하

## ■ 北 소설가 박태원의 외손자...영화 '괴물' 봉준호 감독

## “분단은 빼아픈 현실...영화 만들겠다”

이에서 열린 상하이 국제영화제 심사위원으로 참석하고 있었습니다"면서 "귀국해보니 당시 어머니와 큰이모님의 상봉이 크게 관심을 끌었는데, 모든 기사에 제 이름이 거론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당시 상봉장에서 그의 큰이모 박설영 씨는 "준호라는 조카가 있다는 말은 들었는데 그 애가 유명한 영화감독일 줄 몰랐다. 조카가 만든 영화를 한번 보고 싶다"고 말했다.

봉 감독은 "언젠가는 꽃분단 소재를 다루고 싶다는 말을 하고 싶다. '공동경비구역JSA' 같은 명작도 있지만 분단에는 우리 민족의 한이 서려 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예술적 재능에 대해 "외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봉 감독은 "아버지가 시각효과를 전공하셨는데, 어릴 적 아버지 서재에서 화집, 사진집을 몰래 보며 자랐다"면서 "그때의 기억과 흥분이 지금 내가 영화를 만드는 데 영향을 끼친 것이 아

닌가 싶다"고 했다.

'소설가 구보씨의 1일', '천변풍경'으로 1930년대 모더니즘 문학의 한 획을 그었던 소설가 박태원(1909~1986)은 6·25전쟁 당시 친구였던 상하이 태준을 만나며 간디와 부인과 5남매를 남겨두고 북으로 갔다. 남겨진 가족은 1·4후퇴 때 서울 이남으로 피난했는데 장녀 설영씨만 외가인 서울 이화동에 남겨졌고 이후 소식이 끊겼다.

## “나의 재능은 외조부 아니 아버지 영향”

그는 1958년 백내장 진단과 뇌출혈로 반신불수가 되는 등 30여 년간 병마에 시달리면서도 1977년 역사소설 '갑오농민전쟁'을 집필하는 등 북녘에서 문학 훈장을 불살랐다. 1981년 끝내 구술 능력마저 잃어 1986년 북녘 아래 권영희 씨가 소설의 최종편(3부)을 마무리하기도 했다.

## 버시바우 주한미대사, 드럼연주 때문 美 소환?

## 외교관 음악클럽, 백악관 합동콘서트 추진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드럼 연주 때문에 조단간 미국에 '소환'될지도 모른다.

버시바우 대사의 친한 친구인 앤드 라스 시모니 주미 헝가리 대사가 자가들이 소속된 '외교관 음악클럽' 멤버와 백악관 음악인들간 합동 연주회를 주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미국 외교가 소식통에 따르면 평소 루크로를에 심취해 있는 시모니 대사가 최근 백악관의 조슈아 블튼 비서실장과 토니 스노 대변인 등 백악관 내 음악인들과 접촉, 긴밀한 '음악 회동'을 계획했다.

시모니 대사는 이들에게 "백악관에서 합동 콘서트를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백악관내 음악

인들과 시모니-버시바우 등 외교가 음악 애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합동 공연을 하자는 제안이다.

시모니 대사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음악을 사랑하는 백악관 참모들과 외교관 밴드간 합동공연이라는게 아주 아심적인 목표가 아니라"고 반문하면서 "성사 안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조지 부시 행정부내 로커들과 기타를 연주하고 싶다"는 뜻도 밝혔다는 후문이다. '드럼치는 대사'로 외교가에 널리 알려져 있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와 시모니 대사는 오래 전부터 두터운 친분을 유지, 외교가에서는 '죽마고우'로 통한다.

예일대 록 밴드 때부터 드럼을 친 버



시바우 대사는 지난 1999년 브뤼셀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부대표로 재직 당시 헝가리족 파트너였던 시모니를 처음 만나 음악으로 의기투합했고, 그 인연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 대한항공 이종희 총괄사장

## 佛 레종 도뇌르 훈장받아

대한항공은 5일 이종희 총괄사장이 프랑스 정부로부터 국가 최고 훈장인 레종 도뇌르 훈장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이날 오후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서 필립 티에보 대사로부터 레종 도뇌르 수발리에 훈장을 받는다.

레종 도뇌르 훈장은 '영광의 군단'이란 뜻을 가진 프랑스 국가 최고 훈장으로, 일반적으로 코망데르, 오피시에, 슈발리에 등 3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 '흑거미' 이선경씨, 핫도기 먹기대회 우승 놓쳐



'블랙 위도우'라는 별명이 붙은 이선경씨가 핫도그 빨리먹기 대회에서 '자존'인 일본의 고바야시의 아성을 깨트리는데 실패했다.

핫도그 빨리먹기 대회의 '자존'인 일본의 고바야시 다케루(27)가 4일(현지시간) 뉴욕 코니아일랜드 해변에서 열린 미국 핫도그 먹기 대회에서 열린 미국 핫도그 먹기 대회에서 신기록을 세우며 또다시 우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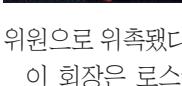
고바야시는 이날 대회에서 12분간 총 53개 4분의 3개의 핫도그를 먹어치워 6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12분간 50개의 핫도그를 먹어 미국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고바야시의 경기자 조이 채스팅은 초반에 앞서 나오자마자 막판 고바야시의 총공세에 무릎을 끊고 말았다.

'흑거미' 이선경씨(여·38)는 여성으로는 유일하게 대회에 출전했으나 37개의 핫도그를 먹는데 그는 실패했다.

## '2006 자랑스런 일꾼상...' 유태명 동구청장 선정



이정희 광주변호사회장, 사개추위 실무위원 위촉



이정희(52·사진)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지난달 28일 대법원 산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 회장은 로스쿨 문제와 고등법원 상고부 문제를 비롯한 각종 사법개혁 관련 법령 제·개정 및 기본계획 수립, 사법개혁 추진 상황 점검 평가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된다.

유태명(사진) 광주 동구청장이 '경향신문사 스포츠칸'과 '뉴스웨이'가 공동주관하는 '2006 한국의 표상'이 되는 자랑스런 일꾼상 - 장한 한국인賞'을 수상자로 5일 선정됐다.

## 내방

▲박태근씨(한국철도공사 광주지사장)

▲Philo통기티 동호회=40세 이상 남녀, 매월 1회 정기발표회, 초보자도 가능 019-660-3388

▲푸른학당=온전반(검정고시반), 오후반(초등반·중등반·고등반), 아동반(초등반·중등반·고등반)

광주교육대 맞은편 2층 529-1188

## 부음

▲황금순씨 별세 정세원·세운·재균씨 모친상 김성권·박승구씨 빙모상=발인 7일(금) 무등장례식장 101호, 515-4488

▲한희래씨 별세 정종염·진주·종명씨 모친상=발인 7일(금) 무등장례식장 102호, 515-4488

광주에서 30분 아름다운 청계공원

가족돌봄 특별분야

대표:(062)515-4488

